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990.4.21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 한몸 대행진(올림픽 공원)



2005.5.15 성가정임양원 방문

## “서로의 밥이 되어 주세요.”

“서로의 밥이 되어 주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허기진 이들을 위해 ‘밥’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수룩한 사람을 얹잡아보고 “저 사람은 내 밥이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워 우리 모두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나는 결코 밥이 될 수 없다”라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인을 ‘내 밥’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간다운 사회가 되려면 타인에게 밥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려는 마음도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와 약육강식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밥이 되어 주세요-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에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김 추기경님의 기억은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여러 가지 색의 작은 돌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기억하는 김 추기경님의 모습은 농부의 모습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 1988년에 한마음한몸운동이라는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추기경님은 모든 교우들이 이 운동(국내입양, 헌혈, 장기기증, 헌미헌금 등)을 통해서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써 세상에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추기경님 스스로 열매와 씨앗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 서약을 하셨고, 선종 후 각막 기증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모범을 보여 주심으로써, 생명나눔 운동의 거룩한 씨앗이 되셨습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세요!” 가르침을 주시고, 몸소 실천하신 김 추기경님은 진정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분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을 때 진정 서로에게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바보가 바보들에게-김수환 추기경 잠언집)